

함께 짓는 집

우리 공동의 집을 위하여



함께 짓는 집

우리 공동의 집을 위하여

2026. 6. 26~28
영화공간 주안

목차

인사말	천주교 인천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04
축사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05
서문	인천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장 장동훈 신부	07
<hr/>		
영화제 소개		07
상영 시간표		07
개막식 프로그램		07
<hr/>		
개막작	프란치스코 교황 : 맨 오브 히스 워드	07
폐막작	사랑, 우리 멀리 이곳에	07
특별상영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	07
<hr/>		
노동	모범적 실패	07
	사무라이 타임슬리퍼	07
<hr/>		
돌봄	고양이 통역기	07
	송석주를 찾습니다	07
	우리 월금씨	07
	필링	07
<hr/>		
차별	내 이름은	07
	수학여행	07
	이카이노 전기	07
	종이학과 푸른 개구리	07

<hr/>		
가족	모르게	07
	민지올림	07
	센티멘탈 벨류	07
<hr/>		
생명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	07
	방랑자 환상곡	07
	탄소를 세는 사람들	07
<hr/>		
공동체	메밀묵	07
	시멘트 드라이브	07
	한 판 더	07
	혁신과 보존 사이 - 왕수 & 아르노 브란틀후버	07
	양키시장	07
<hr/>		
연대	가을이 여름에게	07
	나의 올드 오크	07
	살아있게	07
	이어지는 자리	07
<hr/>		
관객과의 대화		04
관람 안내		04
영화제 조직		04



제2회 인천가톨릭영화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화는 단지 이야기를 보여주는 예술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자리를 이해하게 하고,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이웃과 사회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특별한 창입입니다. 우리는 한 편의 영화를 통해 기쁨과 슬픔, 외로움과 희망을 함께 경험하며 더 깊은 인간다움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올해 인천가톨릭영화제는 “함께 짓는 집 : 우리 공동의 집을 위하여”라는 주제 아래,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들판에 서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과 형제자매가 되는 삶을 바라보며, 사랑과 나눔으로 함께 짓는 공동의 집이 어떤 모습이어야는지 그려보고자 합니다.

인천가톨릭영화제는 인천교구민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에게 열린 문화의 광장입니다. 이번 영화제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좋은 영화를 통해 위로와 희망, 사유와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영화 속 가치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오래 머물며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화제가 열릴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인천광역시 시장님과, 애써주신 모든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천주교 인천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 정 신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유정복(바오로)입니다.

‘제4회 바다의 별 문화예술축제’ 개막을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천주교 인천교구 정신철 주교님과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축제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강조하신 자비와 나눔, 생명 존중, 평화의 정신을 예술로 재해석해 시민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영화, 미술과 사진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나홀간의 축제는 우리 인천이 지향하는 열린 도시,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가 인천을 세계와 연결하는 소중한 발걸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이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예술의 향기를 마음껏 느끼시길 바랍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제의 개막을 축하하며, 축제에 참여하신 모든 분의 발걸음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나귀와 염소, 낡은 장롱, 살림 도구 한가득한 보따리

제2회 인천가톨릭영화제에 부쳐

나귀와 염소, 낡은 장롱, 살림 도구 한가득한 보따리.

전혀 연관 없어 보이는 이 낱말들을 하나로 잇는 단어가 '성당'이라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큰비로 강이 범람하거나 견딜 수 없는 추위가 닥쳐오면 으레 성당을 피신처로 삼았다고 합니다. 집이라고 해 봐야, 귀족들의 저택을 제외하곤, 죄다 나무로 열기설기 지은 움막 뿐이었으니 웅중한 돌로 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성당만큼 미더운 곳은 없었을 터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장롱과 솔단지 등 남루한 살림살이들도 그렇게 성당의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곤 계절이 몇 번 바뀌도록 방치되곤 했습니다. 제발 찾아가라는 성당 정문에 게시된 본당 신부의 호소문은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비에 쓸려나가는 자신들의 집을 뒤로한 채, 보잘것없는 살림살이를 들쳐메고 종종걸음을 옮겼을 사람들에게 성당은 그야말로 '아버지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깨끗하고 반듯한 오늘의 성당을 생각하면 낯설고 당혹스럽기까지 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느꼈을 성당의 실재감은 오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하고 실제적이었을 것입니다.

제2회 인천가톨릭영화제의 주제, '집'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오늘의 교회는 저 옛사람들에게처럼 든든하고, 남루한 살림살이를 펼쳐놓고 밥을 지어 먹어도 부끄럽지 않을, 누구라도 깃들 문턱 낮은 '집'인지, 어떻게 우리는 "산발적 세계대전"(교황 프란치스코)과 다름없는 오늘에 드리운 먹구름을 견어내고 인류 공동의 집(common house)을 지켜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가톨릭(Catholic)이라는 말의 뜻이기도 한 '보편'은 단순히 똑같은 형태, 똑같은 생각의 일사불란한 확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양하고 독특한 '너'를 품을 수 있는 아량과 여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마다 다른 고유한 생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거대한 초록의 '숲'을 그릴 수 있는 상상력에 빚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름'은 갈등과 투쟁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 '보편'이라는 여백 속에서는 '다름'은 서로를 빛내는 풍요로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965년, 가톨릭교회의 수장으로서 처음으로 UN 국제연합 연단에 선 바오로 6세 교황은 세계대전이라는 고통의 바다를 함께 건너온 각국의 수장들 앞에서 교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인간'이라는 말이 지닌 위대한 보편성이 곧 가톨릭교회가 추구하는 보편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야말로 국가와 인종, 계급과 성별, 이념과 종교 사이의 골들을 메워 인류를 하나로 묶을 위대한 신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극히 인간다운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인류의 꿈과 교회의 꿈도 다르지 않은 셈입니다.

제2회 인천가톨릭영화제의 꿈도 이와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 탄생과 소멸, 환희와 열정, 연민과 자비, 분투와 승리 등 작품 속 섬광처럼 번득이는 '인간'이라는 '영원한 희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길 기도합니다.

인천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장

장동훈 신부

제2회 인천가톨릭영화제 상영 프로그램

시간	3관	씨네토크
13:10	이카이노 전기	진행 정지욱 영화평론가 초청 이원식 감독
6.26 금요일	단편선 I 이어지는 자리 모범적 실패 종이학과 푸른 개구리 수학여행	진행 정지욱 영화평론가 초청 박지원 감독 윤채원 감독 이윤석 감독
	단편선 II 어린이 / 청소년 민지올림 송석주를 찾습니다 살아있게 한 판 더	진행 신하연 영화연구자 초청 문재웅 감독 여장천 감독 박재범 감독 마준엽 감독
6.27 토요일	13:10 나의 올드 오크	
	19:00 사무라이 타임슬리퍼	
6.28 일요일	단편선 III 시멘트 드라이브 우리 월금씨 가을이 여름에게 방랑자 환상곡	진행 이가을 영화연구자 초청 조형주 감독 김소연 감독 원은선 감독 김효준 감독
	단편선 IV 모르게 고양이 통역기 메밀묵	진행 정지욱 영화평론가 초청 박재현 감독 김영준 감독 강애심 배우 김정민 감독

시간	4관	씨네토크
13:10	센티멘탈 벨류	
6.26 금요일	특별상영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	
	개막식 축하공연 I 축하 및 환영인사 Opening Film 개막인사 & 개막 선언	공연 리여석기타오케스트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천주교인천교구 정신철 주교 영화제집행위원장 장동훈 신부
	개막작 프란치스코 교황 : 맨 오브 히스 워드	진행 정현진 기자 대담 장동훈 신부 김 민 신부
6.27 토요일	13:10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	진행 한문정 교수 초청 왕민철 감독
	16:00 필링	진행 정지욱 영화평론가 초청 정형석 감독
	19:00 혁신과 보존 사이 - 영수 & 아르노 브란틀후버 양키시장	진행 조은성 감독 대담 이의중 건축가 이주용 감독
6.28 일요일	13:10 내 이름은	진행 윤필립 영화연구자 초청 정지영 감독
	16:30 탄소를 세는 사람들	진행 한문정 교수 초청 이승기 조감독
	폐막작 사랑, 우린 멀리 이곳에	진행 최인비 신부 대담 김경원 감독 고영초 원장 나승구 신부

★ 개막작·폐막작 관객에게 인천가톨릭영화제 예코백을 드립니다.

제2회 인천가톨릭영화제 소개

제2회 인천가톨릭영화제는 영화예술을 통해 인간과 공동체, 사회와 시대의 문제를 함께 성찰하고자 기획된 영화 문화 축제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함께 짓는 집: 우리 공동의 집을 위하여”를 주제로, 서로 다른 삶의 자리와 사회적 현실을 담아낸 국내외 영화들을 관객들에게 소개합니다.

영화제는 노동, 돌봄, 가족, 생명, 차별, 연대, 도시와 공동체 등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다양한 주제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조명합니다. 상영작들은 단순한 사회 고발이나 메시지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관계의 의미, 공동체의 가능성을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국내·외 장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은 동시대 영화가 보여주는 미학적 다양성과 사회적 질문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주최하고, 인천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2회 인천가톨릭영화제는 영화를 매개로 관객과 사회가 만나고, 서로 다른 경험과 시선을 공유하는 문화적 공론장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다양한 영화적 경험 속에서 관객들이 동시대의 삶과 공동체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제 “함께 짓는 집, 우리 공동의 집을 위하여”

가톨릭(Catholic)이라는 말의 뜻이기도 한 ‘보편’은 단순히 똑같은 형태, 똑같은 생각의 일사불란한 획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양하고 독특한 서로의 모습을 품을 수 있는 아량과 여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온갖 생물의 다양한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도, 잠시 뒤로 물러나 거대한 초록의 ‘숲’을 볼 수 있는 상상력에 빚낼 수 있습니다. ‘다름’은 갈등과 투쟁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 보편이라는 여백 속에서는 서로를 빛내는 풍요로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965년, 가톨릭교회의 수장으로서 처음으로 UN 국제연합 연단에 선 바오로 6세 교황은 세계대전이라는 고통의 바다를 함께 건너온 각국의 수장들 앞에서 교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인간’이라는 말이 지닌 위대한 보편성이 곧 가톨릭교회가 추구하는 보편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와 인종, 계급과 성별, 이념과 종교 사이의 골들을 뛰어넘어 인류를 하나로 묶을 위대한 신비가 바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제2회 인천가톨릭영화제가 담고자 한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와 너의 다름을 품으면서도 ‘우리’를 상상하게 할 힘을, 단면에 불과한 구체가 아닌 울퉁불퉁하지만 다양하고 풍요로운 다면체를 떠올리게 할 영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산발적 세계대전”(교황 프란치스코)과 다름없는 먹구름 가득한 오늘, ‘인간’이라는 ‘영원한 희망’을 섬광처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개막작·폐막작 관객에게 인천가톨릭영화제 예코백을 드립니다.

개막식

식 순

1. 축하공연 리여석기타오케스트라
2. 축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3. 환영사 천주교인천교구 정신철 요한세례자 주교
4. Opening Film
5. 개막인사 및 개막선언 영화제집행위원장 장동훈 신부

축하공연 프로그램

연주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

1. 모차르트 :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 1악장-4악장
2. 스페니쉬 로망스
3. 알함브라궁의 추억
4. [영화음악] Por una Cabeza (여인의 향기 OST)
5. 라 쿵파르시타 La Cumparsita
6. [영화음악] Over the Rainbow (오즈의 마법사 OST)

개막작

프란치스코 교황: 맨 오브 히스 워드



개막작 《프란치스코 교황 : 맨 오브 히스 워드》는 제2회 인천가톨릭 영화제의 주제인 “함께 짓는 집 : 우리 공동의 집을 위하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목소리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 평화와 정의, 그리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교황은 우리가 서로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경쟁과 배제가 아닌 돌봄과 연대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갈등과 불평등, 환경 위기 속에서 이 작품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묻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 맨 오브 히스 워드》는 왜 우리가 ‘공동의 집’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성찰하게 하는 영화이자, 올해 영화제의 정신적 출발점이 되는 개막작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맨 오브 히스 워드 Pope Francis: A Man of His Word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 | 2018 | 96분 | 다큐멘터리 | 전체 관람가

감독 빔 벤더스

출연 프란치스코 교황

대담 6.26(금) 4관 19:00

화려한 바티칸궁을 마다하고 소박한 방 한 칸을 선택한 사람 고급 리무진 대신 소형 승용차에 올라 손인사를 전하는 사람 축구에 열광하고 탱고를 즐기며 유머를 사랑하는 사람 이웃의 작은 고민을 제 일처럼 마음 쓰고 공감하는 사람 그의 이름은 프란치스코, 온 세계의 친구 교황입니다. 교황이 함께한 모두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폐막작

사랑, 우린 멀리 이곳에

폐막작 《사랑, 우린 멀리 이곳에》는 서로 다른 삶과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관계와 돌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해 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영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공감과 환대, 그리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용기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결을 내어주는 작은 실천이 결국 공동체를 이루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따뜻하게 전합니다.

《사랑, 우린 멀리 이곳에》는 올해 영화제의 주제인 “함께 짓는 집”이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서로를 돌보는 일상 속에서 시작됨을 보여주며,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로 영화제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사랑, 우린 멀리 이곳에 Love, we are here far away



한국 | 2025 | 68분 | 다큐멘터리 | 전체 관람가

감독 김경원

대담 6.28(일) 4관 19:00

영등포의 뜨거운 여름, 화려한 도심의 소음에서 불과 몇 걸음만 들어가면 넓고 허름한 건물들 사이 '요셉의원'이 나타난다. 수십 년간 의료 사각지대의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어온 이곳이 도시 재개발로 인해 서울역으로 이전해야만 한다. 아지랑이가 피는 여름, 병원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의료진과 환자들의 작별, 그리고 서울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통해 장소가 품고 있던 기억과 이어지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별상영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



《류이치 사카모토 : 다이어리》는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가 남긴 마지막 기록을 통해 예술과 삶, 시간과 생명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전하는 작품입니다. 자연의 소리와 음악, 침묵의 순간들을 따라가며 삶의 유한함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희망을 발견하는 과정을 담아냅니다. 한 예술가의 고요한 시선은 관객들에게 자신과 세상,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잔잔한 울림을 전합니다.

Ryuichi Sakamoto: Diaries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

原案監一
 監督 小森 弘典 主演 小森 弘典
 脚本 小森 弘典 音楽 小森 弘典
 撮影 小森 弘典 編集 小森 弘典
 音楽 小森 弘典 衣装 小森 弘典
 美術 小森 弘典 照明 小森 弘典
 録音 小森 弘典 効果 小森 弘典
 編集 小森 弘典 監修 小森 弘典
 制作 小森 弘典 配給 小森 弘典
 2026.04.01

마지막까지
 음악으로 살아있던
 모든 순간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 Ryuichi Sakamoto: Diaries



일본 | 2026 | 96분 | 다큐멘터리 | 전체 관람가

감독 오모리 켄쇼

출연 류이치 사카모토, 타나카 민

대담 6.26(금) 4관 16:00

전자음악의 선구자이자 영화음악 거장, 환경과 평화를 외치는 운동가로 활약해온 전방위의 아티스트 류이치 사카모토 2020년 12월,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마지막까지 음악으로 살아있던 류이치 사카모토의 모든 순간

노동 삶의 기반

노동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모범적 실패》와 《사무라이 타임슬리퍼》는 일하는 사람들의 웃음과 좌절, 실패와 성장을 통해 노동의 의미를 다시 묻습니다.

이 작품들은 성과와 효율 중심의 시선을 넘어, 노동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노동의 참된 가치와 인간다운 삶의 기반을 함께 성찰하는 섹션입니다.

모범적 실패

사무라이 타임슬리퍼

모범적 실패 Good Fail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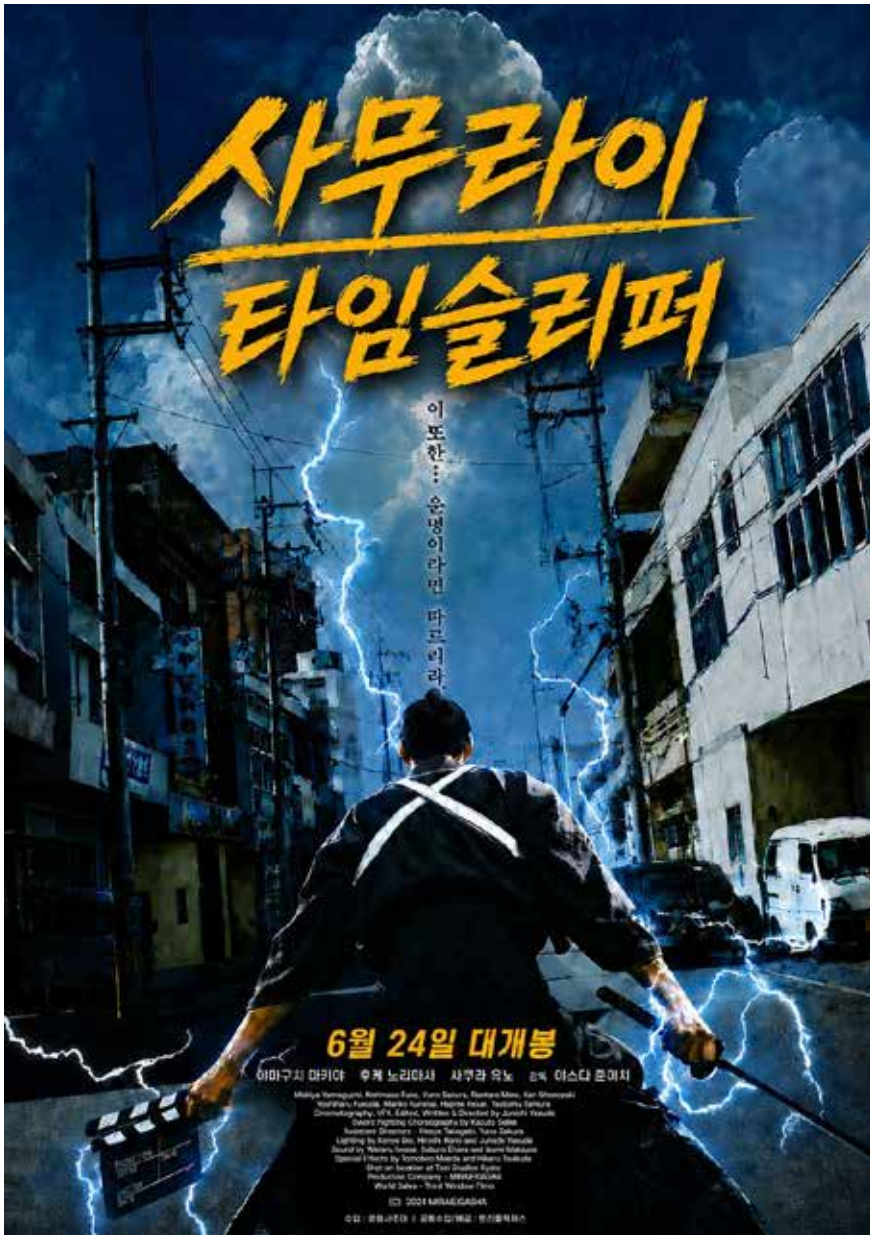
한국 | 2025 | 15분 | 극영화 | 15세 이상 관람가

감독 윤채원

관객과의 대화 6.26(금) 3관 16:00

학창 시절 각광 받는 모범생이었던 재학은 여러 도전에 실패하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로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런 재학에게 어느 날 모교에서 '선배와의 만남' 초청 전화가 걸려오고, 얼떨결에 특강을 맡게 된 재학은 준비된 내용 대신, 다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다.

5회 2030청년영화제 사전제작지원작



사무라이 타임슬리퍼 A Samurai in Time



일본 | 2024 | 132분 | 극영화 | 전체 관람가

감독 야스다 준이치

출연 야마구치 마키야, 후케 노리마사, 사쿠라 유노, 미네 란타로, 쿠레나이 만코, 후쿠다 요시하루
관객과의 대화 6.27(토) 3관 19:00

에도 시대 말기, 폭풍이 몰아치던 교토의 한방. 적대 세력의 무사와 결투를 앞둔 한 사무라이는 번개의 섬광에 휩싸이며 정신을 잃는다. 눈을 떠보니, 그가 서 있던 곳은 더 이상 옛 교토가 아니다. 시간을 넘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현대의 시대극 촬영 세트장. 여전히 사무라이 복장을 한 그는 스태프들에게 엑스트라로 오해받아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카메라 앞에 서게 된다. 그러나 그의 진짜 같은 외모와 말투, 그리고 완벽한 검술은 곧 사람들의 눈에 띄어 각종 시대극의 단골 배우로 활약하게 된다. 그가 맡은 역할은 영화 속에서 화려하게 베이는 인물, 즉 '죽는 연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라이' — 키라레야쿠(斬られ役). 시대를 초월해 영화 속 세계로 떨어진 한 사무라이가 현대의 혼란스러운 촬영 현장에서 펼쳐는 웃음과 감동, 그리고 아이러니로 가득한 시간여행 이야기.

48회 일본 아카데미상 작품상, 편집상

49회 일본가톨릭영화상 대상

돌봄

관계의 방식

돌봄은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삶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관계의 방식입니다. 《고양이 통역기》, 《송석주를 찾습니다》, 《우리 월금씨》, 《필링》은 가족과 이웃, 사회적 약자를 향한 작은 관심과 연대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지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경고한 '무관심의 세계화'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이 작품들은 돌봄이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곁을 내어주는 일상적 실천임을 이야기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묻습니다.

고양이 통역기

송석주를 찾습니다

우리 월금씨

필링

고양이 통역기 Cat Translator



한국 | 2024 | 25분 | 극영화 | 전체 관람가

감독 김영준

출연 강애심, 서예화, 권승우

관객과의 대화 6.28(일) 3관 16:00

반려묘 '하루'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슬픔에 빠져있는 '예화'. 어느 날, 예화는 우연히 하루가 차고 다니던 목걸이가 '동물 언어 통역기'라는 것을 알게 된다. 혹시나 죽기 전 남긴 메시지가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예화는 통역기를 판 잡화점을 찾아간다.

11회 가톨릭영화제 우수상, 스텔라상

7회 전주국제단편영화제 개막작

송석주를 찾습니다 Missing



한국 | 2025 | 29분 | 극영화 | 전체 관람가

감독 여장천

출연 박경근, 강민서, 강윤민지, 오현수

관객과의 대화 6.27(토) 3관 13:30

퇴직 경찰 병철은 산책을 나왔다가 집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 바깥을 배회하던 병철은 강아지를 찾아 헤매는 동네 아이 홍주를 만나고, 홍주의 강아지를 찾아주다 집에서 점점 멀어진다.

12회 가톨릭영화제 대상, 스텔라상

20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새로운별빛상 단편

6회 사람사는세상영화제 우수상

우리 월금씨 Dear Wolgeum



한국 | 2026 | 23분 | 극영화 | 전체 관람가

감독 김소연

출연 변중희, 기주봉

관객과의 대화 6.28(일) 3관 13:30

월금은 남편 재호를 위해 집에 요양 보호사가 방문하는 재가 급여를 신청하지만 까다로운 심사에 좌절한다. 그러던 중, 월금은 친구들로부터 재심사 합격을 위한 비기를 전수받는다.

4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한국경쟁 부문



한국 | 2026 | 101분 | 극영화 | 12세 이상 관람가

감독 정형석

출연 박기룡, 김태희, 윤복인, 양선민

관객과의 대화 6.27(토) 4관 16:00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은 택시 기사 성준은 아내와도 멀어진 채 무감각한 일상을 버틴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배우 지망생 민아와의 인연은 굳게 닫힌 그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끝내 멈춰 있던 삶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

27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시네마 부문

차별

공동체의 균열

차별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가장 깊은 상처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이름은》, 《이카이노 전기》, 《종이학과 푸른 개구리》, 《수학여행》은 혐오와 배제, 역사적 상처와 사회적 차별이 개인과 공동체에 남긴 흔적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작품들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며 이야기하는 일이야말로 화해와 회복의 출발점임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존엄을 인정할 때, 공동체는 비로소 균열을 넘어 연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내 이름은

수학여행

이카이노 전기

종이학과 푸른 개구리





내 이름은 My Name



한국 | 2025 | 113분 | 극영화 | 15세 이상 관람가

감독 정지영

출연 엄혜란, 신우빈, 최준우, 박지빈, 김규리

관객과의 대화 6.28(일) 4관 13:30

“2026년 봄, 당신의 잃어버린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기억할 수도, 기억하기도 싫었던 그 때의 제주가 내 아들에게 찾아왔다. 촌스러운 이름이 인생 최대 고민인 영옥. 어쩌다 서울서 전학 온 경태의 눈에 들어, 절친 민수를 밀어내고 난생처음 반장이 된다. 하지만 자리가 무색하게, 경태의 꼭두각시가 되어 교실 안 폭력을 방관한다.

지독하게 아픈 봄이었수다, 우리 어머의 1949년은. 손자뻘 아들 영옥을 홀로 키워온 정순. 서울서 새로 온 의사와 함께, 까맣게 지워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아보려 한다. 분홍색 선글라스를 쓰고 하얀 차를 몰고 제주 곳곳을 누빌수록, 50년 전 그날의 숨겨진 약속이 떠오르는데...

76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 포럼 부문 초청작

28회 우디네 극동영화제 관객상

수학여행 School Trip



한국 | 2024 | 25분 | 극영화 | 전체 관람가

감독 이윤석

출연 신에서, 최정인, 최수현

관객과의 대화 6.26(금) 3관 16:00

‘지은’은 기초수급자 라는 것을 숨기며 학교생활을 이어간다. 하루하루 스스로를 숨기며 지내던 지은에게 중학교 마지막 수학여행이 다가온다. 기초수급지원자 보조 지원을 신청하면 무료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지만, 차마 신청하지 못한다.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지금까지 숨긴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봐. 그 때, 엄마 미현이 일하는 곳에서 지은은 보게 된다. 자신 때문에 돈을 훔치는 엄마를.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았던 우리 모두의 어린 시절을 바라본다.

5회 2030청년영화제 대상

51회 서울독립영화제 단편 쇼케이스 부문

이카이노 전기 Ikaino



한국 | 2025 | 99분 | 다큐멘터리 | 12세 이상 관람가

감독 이원식

출연 조정향, 부영철, 임신출, 이데 카즈시, 송실성

관객과의 대화 6.26(금) 3관 13:30

‘이카이노’는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재일 조선인 집단 거주지의 이름이다. 행정적으로는 이미 50여 년 전에 삭제된 지명이지만 이카이노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말해져야 하는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카이노 전기>는 쓰루하시 시장에서 야채, 정육, 곰창, 옷 가게를 하며 살아온 1세대에서 4세대에 걸친 재일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제주 4.3 항쟁, 한국전쟁, 복송 계획 등을 거쳐 헤이트 스피치와 한류열풍이 공존하는 동시대까지, 이카이노의 사람들은 “한국인들보다 더 한국인의 정체성을 더 잘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 그중 야쿠자가 될 뻔했던 정육점 사장 부영철의 기개 넘치는 일화들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몇 편의 영화, 몇 권의 책을 응축한 듯한 장대한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그 생생한 구체성으로 역사책을 가뿐히 제치는 탁월한 전기(口記).

30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

종이학과 푸른 개구리 Paper Cranes & Blue Frog



일본 | 2025 | 20분 | 극영화 | 전체 관람가

감독 차보

출연 사카모토 토키, 테라다 츠요시, 미마스 카노코

관객과의 대화 6.26(금) 3관 16:00

여행가는 길에서 만난 소년과 고독한 여성,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쫓아가는 아버지의 이야기. 소년은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에 있는 '원폭의 아이 상'의 모델이 된 소녀를 담은 그림책을 들고 히로시마로 향한다. 과거의 어두움을 지닌 여성과 잊혀진 것을 찾는 소년. 두 사람의 짧은 교차는 전쟁과 첫사랑, 그리고 생명의 의미를 조용히 묻는다.

가족 가장 작은 공동체

가족은 인간이 처음으로 관계를 배우고 사랑과 책임을 경험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모르게》, 《민지올림》, 《센티멘탈 벨류》는 가족 안에서 마주하는 사랑과 상처, 갈등과 이해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이 작품들은 가족이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해와 화해의 노력은 결국 더 넓은 공동체를 살아가는 힘이 되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모르게

민지올림

센티멘탈 벨류



모르게 IN SECRET



한국 | 2024 | 37분 | 극영화 | 12세 이상 관람가

감독 박재현

출연 김민서, 소영미, 문승배, 원향라

관객과의 대화 6.28(일) 3관 16:00

이젠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중학생 소은이는 최근 아버지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음을 직감한다. 현서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의 정체는 바로 영어학원 선생님. 소은이는 그녀가 일하는 곳으로 학원을 옮기는데, 그 이유가 꼭 성적을 올리고 싶어서만은 아닐 것임을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다.

25회 대구단편영화제 애플시네마 대상, 관객상

민지올림 Posted by Minji



한국 | 2024 | 22분 | 극영화 | 전체 관람가

감독 문재웅

출연 백송희, 김시하, 문석범, 옥지후

관객과의 대화 6.27(토) 3관 13:30

민지는 신부님의 사제복을 훔쳤다. 사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사제복을 가지고 성당 밖으로 나와 버린 것이다. 일은 이미 벌어졌다. 민지에게 사제복으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 아마도, 신부님은 교해성사와 미사를 할 수 있으니까 신과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민지는 사제복을 입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럴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한번의 시도로 가능할 리 없다. 그래서 민지는 사제복을 성당에 돌려놓지 않고 숨겨 놓는다. 하지만 민지는 사제복을 몰래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25회 전주국제영화제 특별상영: 지역 독립영화 쇼케이스

7회 제주흔디독립영화제 개막작

2026.02.18 <4월말 편 누구나 봐야 할 영화> 요아킴 트리에 감독 신작

"단 한 권의 영화로
하나의 삶을 살아내는 경험"



Sentimental Value
센티멘탈 벨류

리나테 헤인스베 스텔란 스카스가드 잉가 입스도테르 릴레아스 엘르 패닝

센티멘탈 벨류 Sentimental Value



노르웨이, 프랑스, 덴마크, 독일 | 2025 | 134분 | 극영화 | 15세 이상 관람가

감독 요아킴 트리에

출연 르나테 헤인스베, 스텔란 스카스가드, 잉가 입스도테르 릴레아스, 엘르 패닝

관객과의 대화 6.26(금) 4관 13:30

오래전 집을 떠났던 영화감독 구스타브가 배우가 된 딸 노라에게 "너를 위해 쓴 각본"이라며 신작의 주연 자리를 제안하러 돌아온다. 동생과 달리 아버지가 편하지 않은 노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그 역할은 할리우드 스타에게 돌아간다. 해지지도 않고, 헤어질 수도 없는 관계 속에서, 한 편의 영화와 함께 두 자매와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과 서로를 마주한다.

78회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

98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

83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 남우조연상

생명

모든 가치의
근원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 정의와 평화의 출발점이 되는 가장 근원적인 가치입니다.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 《방랑자 환상곡》, 《탄소를 세는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생명의 의미를 성찰하게 합니다.

이 작품들은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일깨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한 '생태적 회심'처럼 생명을 존중하고 돌보는 일은 곧 공동의 집을 지키는 일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공동의 책임임을 깊이 전합니다.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

방랑자 환상곡

탄소를 세는 사람들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 Where We Stay for a While



한국 | 2025 | 112분 | 다큐멘터리 | 12세 이상 관람가

감독 왕민철

출연 강지윤, 구시연, 김민재, 도지예, 이세림, 조아라, 최태규

관객과의 대화 6.27(토) 4관 13:30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를 돌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반려동물과는 달리 사람에게 곁을 주지 않는 야생동물을 돌보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며 시골의 산골짜기에서 젊은 날을 보내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1평 남짓의 철창 안에서 살고 있는 사육 곰에 관한 이야기이자 그곳에서 일하는 네 여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51회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 특별상

30회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관객상

방랑자 환상곡 Wanderer Fantasy



한국 | 2025 | 20분 | 극영화 | 12세 이상 관람가

감독 김효준

출연 임은서, 이은서, 이서한

관객과의 대화 6.28(일) 3관 13:30

피아니스트를 꿈꾸며 예고 입시를 준비하는 중3 성희, 입시 곡인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을 레슨 받던 중 느닷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여성스러운 연주가 도대체 뭘까?

51회 서울독립영화제 페스티벌 초이스 단편 쇼케이스 부문

탄소를 세는 사람들 Carbon Counters



한국 | 2026 | 64분 | 다큐멘터리 | 전체 관람가

감독 김성은, 전치형, 백윤석, 김정각

관객과의 대화 6.28(일) 4관 16:00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숫자로 파악하려는 과학적 시도들이 넘쳐나고 있다. 음료수 캔에 적힌 탄소발자국 숫자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싼 국제 협약까지, 탄소 숫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기대고 있는 가장 기초적 지식이다. 하지만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정확하게 세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탄소의 숫자와 그 의미는 우리가 채택하는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문화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탄소는 못 본 척 하고, 어떤 탄소는 꼼꼼히 측정하며, 어떤 탄소는 과도하게 치켜세운다. 모든 중요한 숫자들이 그런 것처럼, 탄소의 숫자 역시 과학적인 동시에 정치적이다.

공동체

함께 존재하는
구조

공동체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 동시에 기억과 관계가 이어지는 삶의 터전입니다. 《메밀묵》, 《시멘트 드라이브》, 《한 판 더》, 《혁신과 보존 사이 - 왕수 & 아르노 브란틀후버》, 《양키시장》은 도시의 변화와 개발, 사라져가는 공간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담아냅니다.

《혁신과 보존 사이》는 미래를 위한 변화와 공동체의 기억을 지키는 보존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를 보여주며, 《양키시장》은 인천의 근현대사가 깃든 공간을 통해 도시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기억 속에 이어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들은 공동체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기억하고 존중하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관계의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와 공동체를 남길 것인가는 결국 어떤 삶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메밀묵

시멘트 드라이브

한 판 더

혁신과 보존 사이 - 왕수 & 아르노 브란틀후버

양키시장



메밀묵 Memil



한국 | 2026 | 33분 | 극영화 | 전체 관람가

감독 김정민

출연 한지안, 박세재, 임형태, 최유리

관객과의 대화 6.28(일) 3관 16:00

추석날 명절 음식으로 나오는 메밀묵을 먹기 싫은 이안은 우연히 도깨비를 만나 메밀묵과 도깨비의 과일을 교환하게 된다.

2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감독상

시멘트 드라이브 Cement Drive



한국 | 2025 | 28분 | 극영화 | 전체 관람가

감독 조형주

출연 장정식, 권민경, 최묘건

관객과의 대화 6.28(일) 3관 13:30

집주인 부부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세입자 할머니를 모시고 불편한 드라이브를 하게 된다.

부부의 자식들은 말을 안 듣고, 할머니의 자식들은 연락이 안된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

9회 강원영화제 핫시네마 페스티벌 경쟁 부문

2026 사람사는세상 영화제 공간사 부문

양키시장 Yankee Market



한국 | 2021 | 15분 | 다큐멘터리 | 전체 관람가

감독 이주용

대담 6.27(토) 4관 19:00

《양키시장》은 철거를 앞둔 인천 '양키시장'을 중심으로, 권력과 정치, 그리고 자본과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장소의 기억과 공동체의 역사를 지우고 망각하게 만드는지를 질문하는 영상 작업이다. 작업은 재개발 속에서 사라져가는 시장의 흔적과 시간의 잔향들을 따라가며,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던 공동체의 감각과 오래된 삶의 기억들을 현재로 다시 소환하고자 한다. 동시에 급속한 도시 개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또 어떤 방식으로 장소를 떠나 보내고 있는가를 묻는다.

한 판 더 Milk tooth



한국 | 2025 | 11분 | 극영화 | 전체 관람가

감독 마준엽

출연 조마리, 조인, 황재희, 조하석

관객과의 대화 6.27(토) 3관 13:30

아이들끼리 직접 유치를 뽑으려 한다. 겁쟁이 마리는 뽑기 싫지만, 언니가 미끼로 내건 피자 유혹은 참기 힘들다. 문고리에 실 묶기, 문짝 광 닦기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빠지는 건 젃니가 아니라 마리의 멘탈 뿐. 이야기는 점점 더 별경게 부어오르고, 실패할 때마다 언니의 작전은 더욱 기상천외해진다.

27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시네마 단편 부문

혁신과 보존 사이 - 왕수 & 아르노 브란틀후버 wang shu and arno brandlhuber - innovation and conservation



독일 | 2021 | 52분 | 다큐멘터리 | 전체 관람가

감독 랄프 브라이어, 클라우디아 쿨란트

대담 6.27(토) 4관 19:00

왕수는 중국의 첫 프리츠커 수상자이다. 아르노 브란틀후버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수년 동안 유럽 건축 현장을 자극해 왔다. 둘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새로 생산되는 재료가 적을수록, 그리고 기존 재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건물의 이코 밸런스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둘 다 현재 불고 있는 철거 광풍에 격렬히 반대한다.

1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마스터&마스터피스: 프리츠커 2009-2023 부문

연대

그것을
유지하는 힘

연대는 서로 다른 삶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가을이 여름에게》, 《살아있게》, 《이어지는 자리》, 《나의 올드 오크》는 외로움과 상실, 사회적 고립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편영화들은 세대와 관계, 일상의 작은 만남 속에서 서로의 삶에 응답하는 순간들을 섬세하게 담아내며, 타인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나의 올드 오크》는 쇠퇴한 탄광 마을 주민들과 새로운 이주민들의 만남을 통해 두려움과 편견을 넘어서는 현대와 연대의 가치를 깊이 있게 그려냅니다.

이 작품들은 연대가 거창한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려는 마음에서 시작됨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관계와 책임 속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을이 여름에게

나의 올드 오크

살아있게

이어지는 자리

가을이 여름에게 From Fall, To Summer



한국 | 2022 | 33분 | 극영화 | 15세 이상 관람가

감독 원은선

출연 김지영

관객과의 대화 6.28(일) 3관 13:30

결혼 39년차의 미숙은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 딸들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하는데, 막내 민희는 재현과의 결혼 준비가 걱정된다.

25회 서울도시영화제 작품상

15회 라 카비나 국제영화제 최우수 중편영화상



나의 올드 오크 The Old Oak



영국, 프랑스, 벨기에 | 2023 | 113분 | 극영화 | 15세 이상 관람가

감독 켄 로치

출연 데이브 터너, 에블라 마리, 로렌조 맥거번 자이니, 데비 허니우드, 트레버 폭스

관객과의 대화 6.27(토) 3관 16:00

영국 북동부의 폐광촌에서 오래된 펍 '올드 오크'를 운영하는 'TJ'는 어느 날 마을로 들어선 낯선 버스에서 사진작가가 꿈인 소녀 '야라'를 만난다 마을 주민들은 불쑥 찾아온 '야라'네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반기지 않지만 'TJ'와 '야라'는 '올드 오크'에서 특별한 우정을 쌓아가는데... "중요한 건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거야"

76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

살아있게 Stay Alive



한국 | 2025 | 12분 | 애니메이션 | 전체 관람가

감독 박재범

출연 박재범, 이윤지, 네오 윌머, 알렉스 윌머, 김세연

관객과의 대화 6.27(토) 3관 13:30

혼자 경쟁에 밀려 살던 붉은발농게 큰손이는 노랑부리저어새의 습격 속에서 양손이와 살아남아 부부의 연을 맺게 되고 아들 작은손이를 낳는다.

이어지는 자리 Palimpsest



한국 | 2025 | 15분 | 극영화 | 전체 관람가

감독 박지원

관객과의 대화 6.26(금) 3관 16:00

집을 내놓은 혜경. 낯선 이들이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 가운데 한 모녀가 집을 보러 오고, 혜경은 그들의 시선 속에서 불안해진다. 지우려 했던 흔적들, 감추고 싶었던 결함들이 드러날까 조심스러워지고, 집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면서도 여전히 그녀의 삶을 붙잡는다.

5회 2030청년영화제 사전제작지원 우수작

4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한국경쟁 부문

씨네토크

개막 대담

일시 6.26(금) 20:00 <프란치스코 교황: 맨 오브 히스워드> 상영 후
장소 영화공간주안 4관
진행 정현진 기자
대담 장동훈 신부, 김민 신부(예수회)

폐막 대담

일시 6.28(일) 19:00 <사랑, 우리 멀리 이곳에> 상영 후
장소 영화공간주안 4관
진행 최인비 신부
대담 김경원 감독, 고영초 원장(현 요셉병원장), 나승구 신부

특별 대담

일시 6.28(일) 16:00
 <혁신과 보존 사이 - 왕수 & 아르노 브란틀후버>, <양키시장> 상영 후
장소 영화공간주안 4관
진행 조은성 감독 (타큐 '오래된 미래도시' 감독)
대담 이의중(건축가), 이주용 감독(한예종 사진학과)

관객과의 대화 단편선I

일시 6.26(금) 16:00 단편선I 상영 후
장소 영화공간주안 3관
진행 정지욱 프로그래머
초청 박지원 감독, 윤채원 감독, 이윤석 감독

관객과의 대화 단편선II 어린이 / 청소년

일시 6.27(토) 13:10 단편선II 상영 후
장소 영화공간주안 3관
진행 신하연 영화연구자 (2030청년영화제 프로그래머)
초청 문재웅 감독, 여장천 감독, 박재범 감독, 마준엽 감독

관객과의 대화 단편선III

일시 6.28(일) 13:10 단편선III 상영 후
장소 영화공간주안 3관
진행 이가을 영화연구자
초청 조형주 감독, 김소연 감독, 원은선 감독, 김효준 감독

관객과의 대화 단편선IV

일시 6.28(일) 16:00 단편선IV 상영 후
장소 영화공간주안 3관
진행 신하연 영화연구자
초청 박재현 감독, 김영준 감독, 강애심 배우

관객과의 대화 이카이노 전기

일시 6.26(금) 13:10 <이카이노 전기> 상영 후
장소 영화공간주안 3관
진행 정지욱 프로그래머
초청 이원식 감독

관객과의 대화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

일시 6.27(토) 13:10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 상영 후
장소 영화공간주안 4관
진행 한문정 교수
초청 양민철 감독

관객과의 대화 필링

일시 6.27(토) 16:00 <필링> 상영 후
장소 영화공간주안 4관
진행 정지욱 프로그래머
초청 정형석 감독

관객과의 대화 내 이름은

일시 6.28(일) 13:10 <내 이름은> 상영 후
장소 영화공간주안 4관
진행 윤필립 영화연구자
초청 정지영 감독

관객과의 대화 탄소를 세는 사람들

일시 6.28(일) 16:00 <탄소를 세는 사람들> 상영 후
장소 영화공간주안 4관
진행 한문정 교수
초청 이슬기 조감독 (KAIST 연구원)

관람 안내

티켓 예매 (예매시스템에 따라 내용 변경)

- 모든 영화는 무료 상영입니다.
- 예매는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잔여 좌석에 한하여 현장 발권 합니다.
-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1인 1매 예매 가능합니다.
- 모든 좌석은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착석할 수 있습니다.

상영관 운영

- 인천가톨릭영화제는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영 10분 전부터 상영관 입장이 가능하며, 상영 시작 15분 후부터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단편 묶음 상영의 경우, 각 단편 상영 종료 후 지연 입장이 가능합니다.
- 상영 중 좌석 이동은 불가합니다.
-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등 전자기기의 전원은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엔딩 크레딧을 포함해 상영 중 사진, 동영상 촬영, 녹음은 불가합니다.
- 상영관 내 뚜껑이 있는 음료 외의 음식물 반입은 불가합니다.

등급

- ㉔ 전체 관람가
- ㉕ 12세 이상 관람가
- ㉖ 15세 이상 관람가

[인천가톨릭영화제 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장동훈 신부

위 원 박유진 신부

최인비 신부

송준희 신부

정지욱

박현주

프로그래머 정지욱

영화제 사무국

사무국장 황동희

간 사 고유진

기획운영팀 장아윤

주최 천주교인천교구

주관 천주교인천교구문화예술위원회

후원 인천광역시